

문화예술교육 공감기대가치와 사회적 성향이 통제된 기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

김철호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The Effect that Empathic Value Expectation of Culture & Art Education and Social Intention have on Eliminating Controlled Mechanism

Chul-Ho Kim

Department of Ad & PR,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기대가치와 사회적 성향이 학습자의 통제된 기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4050세대 대상의 정량적 조사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목표지향 공감기대가치-개인주의, 관계지향 공감기대가치-집단주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목표지향 공감기대가치는 자아효능감 현실화에, 즐거움 공감기대가치는 유보된 욕망 재점화에, 관계지향 공감기대가치는 탈고립 실제화에, 개인주의는 자아효능감 현실화에, 집단주의는 탈고립 실제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공감기대가치와 학습자의 사회적 성향, 그리고 학습자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학제적·융합적 이해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한 질적·양적 적합성 확보, 호혜성을 고려한 운영, 평가, 관리 등과 연계된 후속 연구와 실무적 적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공감기대가치,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아효능감, 유보된 욕망, 탈고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 EVE about culture & art education and social tendencies have on adult educatees eliminating controlled mechanisms. Quantitative research on those in their 40s and 50s was execut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GEVE and individualism, REVE and collectivism. GEVE has a higher influence on actualization of self-efficiency, FEVE on reignition of retained desires, REVE on substantialization of non-isolation, individualism on actualization of self-efficiency, and collectivism on substantialization of non-isolation. This research evokes the importance of an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understanding of EVE in culture & art education, educatees' social tendencies, and their psychological mechanisms. Also,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following research and practical adaptation related to developing programs, secur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priateness reflecting social requirements, and opera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considering reciprocity.

Key Words : Empathic Value Expectation, Individualism, Collectivism, Self-Efficiency, Retained Desire, Non-Isol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oversea research conducted by Cheongju University in 2015.

Received 15 February 2017, Revised 22 March 2017

Accepted 20 April 2017, Published 28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Kim, Chulho (Cheongju University)

Email: philosea@cj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삶의 질과 품격의 고양을 꿈꾸는 인간의 기대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 문화 예술의 학습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의 체화(體化)가, 단순히 배움과 재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놓은 물질만능주의와 무한 경쟁, 그리고 하이테크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편리함과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행위 주체로서의 자아의 확인, 공동체 사회에서의 타자와의 조화, 바른 품성으로의 회귀, 주변을 바라보는 성숙된 시각의 확립 등을 지향하는, 일련의 인간 내면의 성찰(省察)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에는, 제도적인 장치의 뒷받침에 바탕을 둔 교육 시스템 구축, 학습 환경 개선, 물리적 시설과 자원의 확보, 여가 선용의 기회 균등화 등 외형적 인프라 요인의 개선 추구 못지않게, 문화예술 산업과 제반 분야 관련 주체 스스로의 지속적인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통찰, 학습자의 동기[1,2]와 기대가치의 추적, 확인[3,4,5]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인간의 내면에 깃든 심리적 행동 기제의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파악된 학습자 내면의 욕망과 행동의 동인(動因)을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콘텐츠의 개발에 적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로 실용화 하고, 그 효과의 호혜성을 평가/반영하는 실천적 노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동기, 효과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은 부분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바,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적,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요소들을 함께 아우르는 학제적 측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공감(共感, Empathy)은 의식과 행위의 주체가, 대상으로서의 객체의 지각적, 감성적, 행동적 상태 혹은 반응에 동조하며 체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6].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학습자의 공감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문화예술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의의와 가치를 호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가치(Value Expectation)는 의식과 행위의 주체가, 대상으로서의 객체와의 호혜적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하고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주관적 가치이다. 이에 따라, 기대가치가 행동의 주체로 하여금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소통의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이끄는 강한 동인(動因)으로 기능[7]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감 기대가치(Empathic Value Expectation: EVE)는, 행동의 주체가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소통에의 자발적 참여와 체험을 통해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현재적·잠재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문화예술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뛰어난 콘텐츠나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콘텐츠나 지식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교육의 체험을 통해,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성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습득한 일관된 인식, 의지, 행동의 동인으로 지향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이 개인별, 집단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의 이해는, 개인의 교육 목적과 기대가치의 이해, 학습자의 자아 확인, 교육을 통한 사회관계의 구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추적과 발견, 그리고 이들의 실무적 적용과 통합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학습자의 참여가 그 동안 자의적(恣意的)으로 통제되어 왔던 기제(機制)의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경제적, 시간적, 환경적 제약에 의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가치의 충족을 유보해 온 성인 학습자가 시간과 환경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스스로의 의지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음에 따른 것[8]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학습자의 의지와 시대적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요구와 제도적 시스템의 뒷받침 등에 의해서도 활성화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통제되어 온 기제의 현실적인 실효적 파악의 중요성과 이의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학제적·다차원적 이해, 그리고 파악된 해소 요인의 프로그램에의 통합적 적용 필요성을 시의 적절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대한 공감 기대가치(EVE)와 사회적 성향이 성인 학습자의 통제된 기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학제적,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삶의 품격을 높여주고, 사회의 문화적·예술적 실천의 역량을 풍요롭게 키워주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문화 예술 공유를 돕고, 국가의 문화예술 잠재력의 저변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 현대를 사는 개인, 사회, 공동체, 국가 모두에게 그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다분히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법규로 정해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9]으로 설명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조화로운 접목을 통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서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통섭,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10]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체험적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행위 주체로서의 정체성 확인 및 삶의 품격 제고를 희망하는 현대인의 기대가치 충족 욕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오락과 스트레스 해소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자아의 존재감 확인 욕구, 자기 성찰로의 회귀 의지, 타자와의 교감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조화의 지향성, 사회 현상에 대한 공감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의 탄력성 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주고,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기(適期)에 이들을 이끌어 내어 주는 정신적·실천적 매개체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실무적 관심이 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왔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화예술교육의 정신적·실천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성인 참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 특히 성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물질적인 성취와 경쟁에 익숙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 의식의 물질(物神) 지향적 패러다임을 인간 의식의 성찰 지향적 패러다임으로 바꿔주는 매개체 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이, 자기 정체성과 사회성의 증진을 지향하며[11],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12] 있음을 제시한 선행 연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13]으로서, 지식이나 기능의 전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회, 철학, 인문 영역을 포함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제시한 선행연구들과 그 기본적 흐름의 틀을 같이 하며, 나아가, 고령화 사회가 보편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의 성인 참여자의 동기와 지향 가치 등에 대한 학제적 연구 필요성을 시의 적절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2.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기대가치

공감(共感, empathy)은 의식과 행위의 주체가, 대상으로서의 객체의 지각적, 감성적, 행동적 상태 혹은 반응에 동조하며 체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6]. 공감기대가치는, “행위의 주체가 객체로부터, 혹은 객체가 제공하는 대상, 즉, 유형(有形)의 물상(物像), 무형(無形)의 서비스와 아이디어, 정형(精形)의 상징과 의미 등으로부터, 체험을 통해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긍정적 공감을 가치화한 개념”[7]으로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연구 등의 주요 변인인 기대가치(Value Expectation)를 심리학, 교육학 등의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감의 개념에 학제적·융합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선행 연구는 공감이 훈련을 통해 증대[14]되며, 사회적 자기 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15], 사회 관계의 강화를 돕고[16], 개인을 공동체와 이어주는 역할[17]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이 제공하는 잠재적·현재적 가치에 대한 공감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그 역량이 증대될 수 있고,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는 바, 개인의 목표지향적 기대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고, 자발적 참여의 경우, 더 큰 공감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가치에 대한 공감은, 공동체 사회에서 조화와 소통에 기반을 둔 친 사회적 행동과 관계 지향적 태도를 이끌어 내는 실천적 매개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한편, 성인의 문화예술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도 설명되는데, 이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18]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가치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데, 몇몇 연구가 성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가치를, 소비자가치 지향 관점에서 실용적, 오락적, 관계적 동기 및, 자아 활동 중심 관점에서 자아 실천, 자아 존재, 자아 참여 동기[8]와 연계하거나, 기대가치 관점을 적용한 정보적, 오락적, 사회적 동기[3]와 연계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의 기대가치 연구에 있어서 학제적·융합적 시각의 필요성과, 평생교육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는 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성인의 기대가치 연구에도 학제적·융합적이고도 다차원적인 관점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3 사회적 성향

성향은 "일반적으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인지되고 습득된 일관된 인식, 의지, 행동의 현재적/잠재적, 예측적 동인이 되는 지향 경향"[19]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성향은 현대사회에서 삶의 주체인 인간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습득한 일관된 인식, 의지, 행동의 동인으로 지향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사회적 성향으로서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오랫동안 각자의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서로 공존[20]하는 개념으로서 존재해 왔는데, 선행 연구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개인의 문화적 특성[21]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 행동의 동기와 페러다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동인(動因)[19]으로 기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사회적 성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개인주의 성향은, 개인의 목표 달성[22,46], 사회적 승인[23]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최근의 자홀족(자발적 홀로족: Voluntary Solo)의 사회적 보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한편, 개인주의 성향이 갖는 부정적 측면에서는, 고독감[24], 사회적 고립화[25] 등이 제시되고 있다. <Table 1>은 소비자 환경과 개인주의와의 관련 현상을 정리한 선행연구[6,26]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Table 1> Phenomena related to the recent consumer environment and individualism, organized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 Areas | Phenomena |
|-------------------------|--|
| Economy | -Expansion of a mindset prioritizing individual survival as a dysfunction following the long-lasting depression and high unemployment rates |
| Marketing Communication | -The change in paradigm of usage of communication for consumers that pursues individual consumers' value expectation satisfaction -The evolution and fixture of customized 1:1 based integrated communication strategies & tactics targeted towards individual targets, active agents of consumption behavior |
| Marketing | -The expansion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customers and strengthening of individual marketing based on data that targets individuals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products targeted towards one person |
| Media Industry | -Generalization of social media optimized for individuals -Expansion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dividual centered contents - Activation of individual/one-man media |
| Technology | -Expansion of practical individualization of high-end technology. -Expansion of the development of tools using individual centered information and the increasing practical application of such tools |
| Consumer | -The change in individual consumers' status into that of an information acceptor, strengthener, creator, reproducer, and spreader -Centered on individuals who use customized information in an environment overloaded with information |
| Psychology | -The emphasis on a free & individual ego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identity |
| Legislation | -Expansion of legisla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inorities |
| Society Culture | -The increase of one-person families -Increasing Voluntary Solo People -Avoidance of marriage and expansion of low birth rates -Generalization of accepting diversity and differences |

반면에 집단주의 성향은, 인간 관계의 중요성[23], 상호의존성[27], 협력적인 행동[28], 조직의 이익 중심[47] 등을 특징으로 한다. <Table 2>는 최근의 소비자 환경과 집단주의와의 관련 현상을 정리한 선행연구[6,26]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Table 2> Phenomena related to the recent consumer environment and collectivism, organized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 Areas | Phenomena |
|----------------|--|
| Communication | -Expansion of the necessity and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based on reciprocal interaction |
| Marketing | -Increase in customized group production, selling, purchasing activities based on consumer groups -The increase in necessity of continuously checking the small, varied group trend and the necessity of marketing targeting these groups -Checking the trends of target groups based on big data and the expansion of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to extract specific target groups |
| Media Industry | -Continuous differentiation and vitalization of social media based no networking -Expansion of media's role and function as a medium that constructs, secures, and maintains relationships |
| Technology | -Continuou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ools supporting online & social community creation and activities using high-end technology |
| Consumer | -Continuous reminding of the importance of various relationships in the living environment -Generalization of (selective) group activity through community/club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on -Depending on situations and environments, increases i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group decisions |
| Psychology | -Valuing the concept of a relational, reciprocal, interdependent ego following the continuous expansion of a network based society |
| Legislation | -The expansion of protection of digital communities' group rights and interests |
| Society | -The expansion/increase of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 minimal "distanced SOB" using online services and etc. to stop isolation |
| Culture | -Existence of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group culture(school connections, regionalism) -Continuity of digital group culture creation and vitalization |

2.4 통제된 기제(機制) 해소

기제(機制: Mechanism)는 자아의 불안을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 방어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적 기제에 의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취하는 행동에서 정당성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정당화는 행위 주체의 통제된 의식과 의지가 포함된 자의적(恣意的) 방어 행동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통제되어 온 기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통제된 기제로부터 벗어난 자유 의지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인지 등의 추적과 확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획과 실행, 그리고 보완과 관리의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성을 함축한다.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성인 학습자의 경우, 개인의 경제적, 시간적, 환경적 제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심리적 기제의 영향을 받아왔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인 학습자의 자아효능감 확인, 유보된 욕망의 건전한 표출, 관계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탈고립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화 등을 돕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자의·타의에 의해 통제되어 왔던 기제를 내려놓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자아의 불안을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자의적(恣意的) 방어 행동을 그만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통제되어 온 심리적 기제를 내려놓도록 이끄는 동인(動因)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인 학습자의 개인적·사회적 기대가치를 충족시켜 주는 필요조건이면서, 학습자와 삶의 질 향상 간의 연결을 돕는 정신적인 매개체로 기능한다.

2.4.1 자아효능감의 현실화

자아는 "삶의 주체로서의 '나'의 인지적·정서적 사유와 행동, 신념과 개성, 욕망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사유와 행위의 관장 주체"[8]이고, 자아가 삶의 주체인 '나'의 사유와 행위를 관장한다는 것은, 자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변화와 함께 존재하며, 이성적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한 행동과 감정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행동 모두에서 양면적인 활

성화와 통제를 주관[3]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아 효능감은 삶의 주체로서의 '나'의 욕망을 바람직한 삶의 목표에 연결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에 긍정적인 신념을 부여해 주는 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자아 효능감이 목표 달성, 과업 완성 등을 지향하는 주체적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의미[3]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는 자아 효능감이 목표의 수준을 높여주고[29],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30]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행 과업의 성공, 성격과 가치[31]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자아 효능감의 경우, 학습자 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감정, 느낌과 같은 성향과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목표, 과업, 성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성인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는, 첫째, 그 동안 통제되어 왔던 심리적 기제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삶의 주체로서의 '나'의 자신감과 확신의 의지를 현재화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둘째, 문화예술교육이 매개체가 되어, 학습자의 삶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해 주고, 기대가치 추구 행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나아가 과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의 실제적인 체험을 의미한다.

2.4.2 유보된 욕망(慾望)의 재 점화(點火)

욕망은 기본적으로 갖기 못한 것의 획득·소유, 부족한 것의 채움, 가진 것의 유지·개선·확대, 그리고 이러한 의식과 행동을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관적 의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바, 다분히 영속적, 능동적, 미래 지향적, 사회·환경적 인식의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삶의 주체로서 의식과 행동의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보된 개인의 욕망은 시간, 환경,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현출성과 가변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는, 이성적 개념[32]과 충동적 개념[33]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선행 연구는, 욕망이 강력한 행동의 예측 변수로 존재

하며[34], 그 충족 여부로 인간의 행복이 좌우되고 있음[35]을 보여준다. 사실, 성인 학습자에게 있어서의 유보된 욕망은, 성인 학습자가 오랫동안 시간적, 경제적, 상황적, 환경적 제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자의·타의에 의해 유보해 왔던 지식·정보의 획득, 정서적 결핍의 채움 경험 등과 많은 부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의 순기능인 학습자 자아 존중감 제고[12], 문화 향유[36],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37] 등이, 성인 학습자의 유보된 욕망을 바람직하게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는 중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성인 학습자의 유보된 욕망을 자극하고, 채워줄 수 있는 동기인 동시에 매개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바,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제적 측면의 요인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성인 학습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의미 있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갖는다.

2.4.3 탈고립(脫孤立)의 실제화

현대 사회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관계 지향의 사회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임을 의미하고, 이러한 현상은 첨단 기술의 하이테크가 접목된 소셜 미디어의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생활화 등에 힘입어 더욱 더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정착, 1인 가구의 증가 등은 개인의 고립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행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조차도 고립감을 경험[38]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인이 소셜 미디어가 구축해 놓은 다양한 커뮤니티와 여기서 비롯되는 다양한 소속감 속에 중첩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한 개인으로 실제(實在)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실 개인의 자발적 고립은 현대 사회의 자홀족[자발적 홀로족: Voluntary Solo]처럼 개인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홀로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립은 원초적으로 외로움의 경험[39], 정서 장애[40]와 같은 부정적 면을 포함하기가 쉽다.

현대인의 탈고립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인 학습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성 구축을 도와주고, 공동체 사

회에서의 타자와의 조화, 및 바람직한 재 사회화를 돕는 점은, 분명 문화예술교육의 순기능으로 간주되는 바, 문화예술교육과 현대인의 탈(脫)고립과의 연계성 연구는 시기적인 타당성과 필요성을 갖고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위의 이론적 배경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 기대가치와 성인 학습자의 사회적 성향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 기대가치와 통제된 기제의 해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성인 학습자의 사회적 성향과 통제된 기제의 해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2 구성개념 및 변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기대가치, 사회적 성향, 그리고 통제된 기제의 해소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기대가치는 학제적·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대상의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참여 동기 연구[1]와, 정보적, 오락적, 사회적 동기 연구[3]를 참조, 목표 지향 공감기대가치, 즐거움 공감기대가치, 관계 지향 공감기대가치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목표 지향 공감기대가치는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며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목표 지향'으로, 즐거움 공감기대가치는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며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즐거움'으로, 관계 지향 공감기대가치는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관계 지향'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성향은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통제된 기제의 해소 변인의 경우,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 유보된 욕망 재 접화, 탈고립의 실제화로 구체화 하였다. 자아효능감이 "목표 달성, 과업 완성 등을 지향하는 주체적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3]을 의미하는 바,

본 연구에서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는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자신감을 확인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의지와 실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성인 학습자의 유보된 욕망은 "성인 학습자가 오랫동안 경제적·시간적 여유 부족, 혹은 주변의 환경적·문화적 특성 등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해 왔던 희망 분야에 대한 체험과 지식 습득 욕망"[8]을 의미하는 바, 유보된 욕망 재 접화는 성인 학습자가 '그 동안 유보해 왔던 욕망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탈고립의 실제화는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관계 결함에 의한 부정적 정서를 수반하는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외로움" 개념[4]임을 고려하여,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 타인과 사회적 교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3.3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인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기관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자치단체 문화원과 유통업체 부설 기관으로 제한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는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관련 프로그램으로 제한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에, 지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4050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4050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선행 연구[8]의 참조와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정착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며,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갖추고 문화 예술을 즐길 여유를 갖는 중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개월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선행연구[4,8]를 따라, 통상적으로 1개월 수강 경험자라도 수강 결정 이전에 수강의 동기와 장점을 스스로 충분히 검토·확인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작위 표집을 통해 총 33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중 유효 응답 312개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1.0과 AMOS 21.0이 사용되었다.

3.4 척도의 개발

3.4.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기대가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공감기대가치(목표 지향, 즐거움, 관계지향 공감기대가치) 측정 항목은 개념의 학제적·융합적 특성 상, 명확한 선행 연구가 미비한 바,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동기[1], 정보적, 오락적, 사회적 기대가치[3], 실용적, 오락적, 관계적, 목표지향 동기[5]로 정리된 평생교육 동기, 그리고 공유기대가치[4]와 공감가치[6] 연구를 참조하여, 각각 4개 문항,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각 요인의 Eigen Value 값은 각각 13.36, 12.87, 11.90으로 나타났고, 요인 적재량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 개념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들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목표 지향 공감기대가치, 즐거움 공감기대가치, 관계 지향 공감기대가치 요인의 Cronbach 계수는 각각 0.86, 0.85, 0.88로 나타나, 각 요인의 신뢰도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Empathic Value Expectation on Culture & Art Education

| External Motive | Questions | Factor Loading | | |
|-------------------|---|----------------|------|----|
| | | F1 | F2 | F3 |
| Goal-Oriented SVE | 02.When participating in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point that culture & art education helps me achieve my dream. | .852 | | |
| | 04.When enrolling in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point that culture & art education helps me succeed in things that I had wanted to do. | .846 | | |
| | 01.When receiving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point that culture & art education helps me reach goals that I had set. | .825 | | |
| | 03.What I want to empathize with when receiving culture & art education is the feeling that I am achieving something. | .825 | | |
| Fun SVE | 04.When enrolling in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feeling that culture & art education knows I want to pleasantly enjoy it. | | .852 | |

| | | | | |
|-----------------------|--|------|------|------|
| | 01.When receiving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awareness that culture & art education helps me experience fun. | | .822 | |
| | 02.When participating in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point that culture & art education is helping me experience joy. | | .822 | |
| | 03.What I want to empathize with when receiving culture & art education is the feeling that I am enjoying something I want. | | .773 | |
| Relation-Oriented SVE | 01.When receiving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awareness that culture & art education is helping me experience friendly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 | | .884 |
| | 03.What I want to empathize with when receiving culture & art education is the feeling that I have the network I want. | | | .864 |
| | 04.When enrolling in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feeling that culture & art education knows that I want to interact and sympathize with others. | | | .834 |
| | 02. When participating in culture & art education, I want to empathize with the point that culture & art education helps me experience a social sense of belonging. | | | .818 |
| | Eigen Value | 13.4 | 12.9 | 11.9 |
| | Cumulative Percentage | 25.0 | 49.0 | 71.2 |
| | Cronbach's | .86 | .85 | .88 |

3.4.2 사회적 성향

사회적 성향 측정 항목은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으로 접근한 바,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19],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수평적/수직적 측면[23], 문화 성향에서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42]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 각각 4개 문항,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각 요인의 Eigen Value 값은 각각 13.19와 7.98로 나타났고, 요인 적재량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 개념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들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 요인의 Cronbach 계수는 각각 0.86과 0.77로 나타나, 각 요인의 신뢰도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Social Intention

| Internal Motive | Question | Factor Loading | |
|-----------------|--|----------------|------|
| | | F1 | F2 |
| Indivisualism | 04.Competing in society to instill a sense of accomplishment is a natural phenomenon. | .861 | |
| | 01.I generally follow my own choices. | .838 | |
| | 03.In society, it is important for an individual to maintain one's free will. | .835 | |
| | 02.Respec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is an important factor for society to develop. | .800 | |
| Collectivism | 04.If needed to reach a common goal in society, individual disadvantages must be accepted. | | .793 |
| | 03.Consistent application of social regulations is needed for a group to reach a common profit, | | .784 |
| | 02.Strengthening of cooperation among members of society is important for society's development. | | .760 |
| | 01.I generally follow the decision made by the group I am in. | | .722 |
| | Eigen Value | 13.2 | 7.98 |
| | Cumulative Percentage | 41.3 | 66.2 |
| | Cronbach's α | .86 | .77 |

3.4.3 통제된 기제의 해소: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충족, 자발적 재사회화

통제된 기제 해소 측정 항목은 본 연구에서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 유보된 욕망 재 점화, 탈고립의 실제화로 구체화 한 바,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 측정 항목은 전통적인 Bandura의 연구[43]와 성인 대상 평생교육에서의 자아 효능감 측정 항목[3]을 참조하였고, 유보된 욕망 재 점화 측정 항목은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자로서의 성인이 갖는 유보된 욕망 측정 항목[8]을 참조하였다. 탈 고립의 실제화 측정 항목은 고립의 정서적/사회적 측면 측정 연구 [44], 노인 대상 고립 측정 항목[45]을 참조하였다. 각각 4개 문항,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각 요인의 Eigen Value 값은 각각 15.85, 15.82, 11.32로 나타났고, 요인 적재량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 개념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들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 유보된 욕망 재 점화, 탈 고립의 실제화 요인의 Cronbach 계수는 각각 0.95, 0.94, 0.91로 나타나, 각 요인의 신뢰도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Eliminating Controlled Mechanism

| Attitude Change | Question | Factor Loading | | |
|-------------------------------------|---|----------------|------|------|
| | | F1 | F2 | F3 |
| Realization of Self-Efficacy | 04.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confirm belief in one's existence. | .951 | | |
| | 02.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try to achieve goals with one's own will. | .940 | | |
| | 03.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voluntarily try to achieve what one wants. | .935 | | |
| | 01.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face society with confidence. | .916 | | |
| Re-Ignition of Retained Desire | 04.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start something he/she had wanted to do put had to postpone. | | .961 | |
| | 01.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enjoy things he/she had put off. | | .925 | |
| | 03.Culture & art education provides the learner with an opportunity to do something he/she had been restraining | | .906 | |
| | 02.Culture & art education provides the learner with an opportunity to learn something he/she had been waiting for. | | .901 | |
| substantialization of non-isolation | 03.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communicate with society. | | | .943 |
| | 02.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maintain a sense of empathy with others. | | | .872 |
| | 04.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become a member of cooperative society. | | | .868 |
| | 01.Culture & art education helps the learner associate within society. | | | .867 |
| | Eigen Value | 15.9 | 15.8 | 11.3 |
| | Cumulative Percentage | 31.2 | 62.3 | 84.5 |
| | Cronbach's α | .95 | .94 | .91 |

3.4.4 타당성의 확인

측정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공감기대가치와 사회적 성향 측정 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159.005$, $df=160$, $p=0.50$, $NFI=0.944$, $RFI=0.933$, $IFI=1.000$, $TLI=1.000$, $CFI=1.000$, $RMSEA=0.000$). 개념타당성의 경우, 측정항목 간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β)이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집중타당성의 경우,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모두 0.7 이상으로, 그리고 개념신뢰도(CR)도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은 문화예술교육 공감기대가치와 사회적 성향 측정 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6>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the Latent Variables

| Latent Variable | Item | SRW | SE | CR | AVE |
|---------------------------|-------|-------|-------|-------|-------|
| Goal-Oriented SVE | gsve1 | 0.763 | 0.194 | 0.927 | 0.761 |
| | gsve2 | 0.797 | 0.189 | | |
| | gsve3 | 0.764 | 0.198 | | |
| | gsve4 | 0.794 | 0.183 | | |
| Fun SVE | fsve1 | 0.778 | 0.185 | 0.923 | 0.751 |
| | fsve2 | 0.765 | 0.189 | | |
| | fsve3 | 0.712 | 0.195 | | |
| | fsve4 | 0.789 | 0.200 | | |
| Relationship-Oriented SVE | rsve1 | 0.896 | 0.131 | 0.941 | 0.802 |
| | rsve2 | 0.740 | 0.200 | | |
| | rsve3 | 0.822 | 0.152 | | |
| | rsve4 | 0.782 | 0.170 | | |
| Individualism | in1 | 0.777 | 0.197 | 0.926 | 0.758 |
| | in2 | 0.762 | 0.193 | | |
| | in3 | 0.778 | 0.202 | | |
| | in4 | 0.806 | 0.186 | | |
| Collectivism | col1 | 0.648 | 0.184 | 0.909 | 0.714 |
| | col2 | 0.663 | 0.192 | | |
| | col3 | 0.710 | 0.184 | | |
| | col4 | 0.698 | 0.180 | | |

판별타당성의 경우,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잠재변인들 간의 개념적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분산추출지수, 결정계수의 비교 결과,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각선 아래에 위치한 결정계수가 대각선에 위치한 분산추출지수(AVE)보다 작게 나타나, 구성 개념 간 판별타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Result of the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on the Latent Variables

| | GSVE | FSVE | RSVE | Indi. | Coll. |
|-------|------|------|------|-------|-------|
| GSVE | .761 | .093 | .166 | .409 | .209 |
| FSVE | .009 | .751 | .323 | .256 | .143 |
| RSVE | .028 | .104 | .802 | .147 | .443 |
| Indi. | .167 | .066 | .022 | .758 | .295 |
| Coll. | .044 | .020 | .196 | .087 | .714 |

4. 결과

측정모델에 대한 적합성 확인 후, 구조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chi^2=570.588$, $df=439$, $p=0.00$, $NFI=0.917$, $RFI=0.907$, $IFI=0.980$, $TLI=0.977$, $CFI=0.979$, $RMSEA=0.031$ 로 측정되어, 구조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기대가치와 사회적 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목표지향 공감기대가치는 개인주의 성향에($r=.409$, $p<.05$), 관계지향 공감기대가치는 집단주의 성향에($r=.443$, $p<.05$) 상대적으로 더 유의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즐거움 공감기대가치의 경우는 집단주의 성향($r=.143$, $p<.05$) 보다 개인주의 성향($r=.256$, $p<.05$)에 상대적으로 더 유의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 of the Correlations Analysis on the Latent Variables

| Correlations | | | r | p |
|---------------|---|---------------|------|------|
| GO SVE | ↔ | Individualism | .409 | <.05 |
| GO SVE | ↔ | Collectivism | .209 | |
| Fun SVE | ↔ | Individualism | .256 | |
| Fun SVE | ↔ | Collectivism | .143 | |
| RO SVE | ↔ | Individualism | .147 | |
| RO SVE | ↔ | Collectivism | .443 | |
| GO SVE | ↔ | Fun SVE | .093 | |
| GO SVE | ↔ | RO SVE | .166 | |
| Fun SVE | ↔ | RO SVE | .323 | |
| Individualism | ↔ | Collectivism | .295 | |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기대가치와 통제된 기제의 해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9>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지향 공감기대

치는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beta=.339, t=5.17, p<.05$)에, 즐거움 공감기대가치는 유보된 욕망 재점화($\beta=.480, t=7.14, p<.05$)에, 관계지향 공감기대가치는 탈고립의 실제화($\beta=.304, t=4.61, p<.05$)에 각각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 Result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Empathic Value Expectation on Culture & Art Education and Eliminating Controlled Mechanism

| Path | β | t | p |
|--|---------|-------|------|
| Goal-Oriented SVE → Actualization of Self-Efficacy | .339 | 5.17 | <.05 |
| Goal-Oriented SVE → Reignition of Retained Desire | -.114 | -1.82 | >.05 |
| Goal-Oriented SVE → Substantialization of Non-Isolation | -.133 | -2.20 | <.05 |
| Fun SVE → Actualization of Self-Efficacy | -.141 | -2.28 | <.05 |
| Fun SVE → Reignition of Retained Desire | .480 | 7.14 | <.05 |
| Fun SVE → Substantialization of Non-Isolation | .098 | 1.65 | >.05 |
| Relationship-Oriented SVE → Actualization of Self-Efficacy | -.091 | -1.37 | >.05 |
| Relationship-Oriented SVE → Reignition of Retained Desire | -.025 | -.383 | <.05 |
| Relationship-Oriented SVE → Substantialization of Non-Isolation | .304 | 4.61 | <.05 |

[연구문제3]와 관련하여, 사회적 성향과 통제된 기제의 해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0>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주의는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beta=.300, t=4.36, p<.05$)에, 집단주의는 탈고립의 실제화($\beta=.348, t=4.71, p<.05$)에 각각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보된 욕망 재점화에는 집단주의($\beta=-.018, t=-0.25, p<.05$) 보다 개인주의($\beta=.203, t=3.01, p<.05$)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Result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Social Intention and Eliminating Controlled Mechanism

| Path | β | t | p |
|---|---------|------|------|
| Individualism → Actualization of Self-Efficacy | .300 | 4.36 | <.05 |
| Individualism → Reignition of Retained Desire | .203 | 3.01 | <.05 |

| | | | |
|--|-------|-------|------|
| Individualism → Substantialization of Non-Isolation | .141 | 2.18 | <.05 |
| Collectivism → Actualization of Self-Efficacy | .074 | 1.05 | >.05 |
| Collectivism → Reignition of Retained Desire | -.018 | -0.25 | >.05 |
| Collectivism → Substantialization of Non-Isolation | .348 | 4.71 | <.05 |

5. 결론

5.1 논의 및 시사점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흥미의 발산과 재미의 충족, 학습과 교육, 스트레스의 해소 등에 그치지 않고, 의식과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의 자아와 정체성의 확인, 각자 기대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의 바른 품성으로의 회귀,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서의 타자와의 조화, 경계를 허물고 주변을 돌아보는 성숙된 시각의 확립 등을 돕기 위한 열린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간 내면의 성찰(省察)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끄는 동인(動因)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성인 학습자의 경우, 우리 사회의 성장 지향과 결과 위주의 발전 과정이 빚어낸 생존 우선 중심의 사회 풍토 및 이에 따른 개개인의 경제적, 시간적, 환경적 제약과 한계로 인해,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자의적·타의적으로 관심 밖에 두거나, 관심은 있되 오랜 시간 참여를 유보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적지 않게 존재해 온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성인 학습자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최근의 패러다임은, 국가·제도적 측면에서의 문화예술 역량 구축 및 강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관리적 측면에서의 성인 학습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와 양적 다양성 구축, 학습자·환경 중심의 콘텐츠 기획, 관리, 운영의 필요성 환기, 성인 학습자 개인적 측면에서의 삶의 목표 환기 및 정체성의 재확인 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 욕구와 유보된 욕망의 충족 의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대 수명의 확대,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정착, 여가 활용에 대한 인식의 성숙과 더불어 성인 대상 학습과 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학습자가 학습과 교육의 주체로서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기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은 어떠한지, 심리적 측면에서 그들이 경제적, 환경적 제약에 따라 통제해온 기제가 시간적, 경제적 충족에 따라 어떠한 해소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기대가치와 사회적 성향과 통제된 기제의 구체화 된 해소 간에는 어떤 영향력과 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학제적 관점의 접근과 이해가, 현대 사회에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문제1]의 확인에서 보여준 목표지향 공감기대가치와 개인주의 성향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며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목표 지향이, 심리적 측면에서 성인 학습자의 개인적인 성취감 추구, 주체적 의지에 따른 의사 결정,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는 성향과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관계지향 공감기대가치와 집단주의 성향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관계 지향이, 성인 학습자의 집단 이익 관련 공동 목표 우선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 강화 필요성, 소속 집단의 규범과 의사결정 중시 성향과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즐거움 공감기대가치의 경우, 집단주의 성향 보다 개인주의 성향에 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며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즐거움이 다분히 공동의 목표나 집단의 이익 추구보다도,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의 의지, 개성, 욕구와 상대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문제2]의 확인에서 보여준 목표지향 공감기대치가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며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목표 지향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행위 주체로서 성인 학습자가 갖는 의지에 대한 신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즐거움 공감기대가치가 유보된 욕망 재점화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며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즐거움이 그 동안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보해 왔던 성인 학습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망 해소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관계지향 공감기대가치가

탈고립의 실제화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서의 관계 지향이, 성인 학습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타인과의 교감을 활성화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문제3]의 확인에서 보여준 개인주의가 자아 효능감의 현실화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성인 학습자 개인의 주체성, 성취감 추구, 그리고 개성 중시 성향이 성인 학습자가 갖는 의지와 행동에 대한 신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집단주의가 탈고립의 실제화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성인 학습자의 공동 목표 지향, 사회 규범 준수, 그리고 집단 이익을 위한 구성원 협력 중시 성향이 성인 학습자가 고립을 벗어나 소속감을 갖고 타인과 소통을 추구해 가는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인 학습자의 유보된 욕망 재점화에는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공동의 이익, 구성원의 협력, 집단의 목표 추구보다도,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의 성취감, 자율성, 자유 의지가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그 동안 성인 학습자가 유보해 왔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점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자 혹은 주관 단체의 입장에서,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에서 공감하기를 기대하는 가치와 이들이 궁극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기제를 학제적이고도 융합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문화예술교육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 학습자의 내면에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개인적, 환경적, 경제적 제약에 의해 통제되어 오기도 한 ‘자아’와 ‘욕망’,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들의 조절적 표출 형태인 ‘기대가치’를 일깨워 주는 인지적 매개체인 동시에 실천적 증재자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문제1]의 확인이 보여주는, 즐거움 공감기대가치에 대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유의미한 영향력, 그리고 [연구문제3]의 확인이 보여주는, 유보된 욕망 재점화에 대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비록 이 두 연구문제의 확인에서는 개인주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인 학습자의 내면에 이들 두 성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성인 학습자의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공감하고자 하는 가치를 교육, 심리, 소비자 행동을 아우르는 학제적·융합적 기반의 기대가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 둘째, 성인 학습자의 사회적 지향 성향을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으로 구분한 후, 이들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실용적으로 적용하여 그 영향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점, 셋째, 비교적 낮은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심리적 요인을 통제된 기제의 개념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유목화·변인화 하여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과 효과를 과학적·관리적으로 확인하는데 기여한 점,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의한 영향력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을 통한 자아의 성장과 성찰 및 학습 결과의 사회적 환원 필요성 등 성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중요성 인식을 환기시키고 있는 점 등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참여를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에 의한, 비교적 낮은 참여의 경우로 제한하여 연구에 적용한 점, 둘째, 성인 학습자의 통제된 기제 해소를, ‘자아 효능감’, ‘유보된 욕망’, ‘탈고립’의 개념에 제한되게 구체화하여 연구에 적용한 점, 셋째, 사회적 성향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하여 두 성향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한 점 등이다. 이러한 한계는 성인 학습자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과 함께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oversea research conducted by Cheongju University in 2015.

REFERENCES

- [1] C. O. Houle, *The Inquiring Mind*.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 [2] Patricia K. Cross,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s, 1992.
- [3] Chulho Kim, "The Effect That Motives To Use Lifelong Education Has On The Brand Value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 13, No. 4, pp. 5-19, 2015.
- [4] Chulho Kim, "Shared Value Expectation on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325-336, 2015.
- [5] Chulho Kim, "The Effect that Participating Motives and Involvement about Lifelong Education have on the Learners' Satisfaction, Continuous Intention to Take Courses,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6, pp. 575-588, 2015.
- [6] Chulho Kim, *Understanding Advertising Planning with Interdisciplinary, Integrated Symbiology*. Hankyungsa. Seoul. pp. 136-139. 2017.
- [7] Chulho Kim, "A Study on the Components of Information Users' Value Expectation about Infographics",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 13, No. 3, pp. 227-238, 2015.
- [8] Chulho Kim, "The Effect of Participating Motives for Lifelong Education on the Releasing of Controlled Inferiority, the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and Voluntary Resocializ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 515-530, 2014.
- [9]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4 "Basic Research on Cultural Capacity". p.5, 2015.
- [10]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Basic Research to Develop the Proces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p.34, 2009.
- [11] M. Mirza, "The Therapeutic State: Addressing The Emotional Needs of The Citizen Through The Art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1, No. 3, pp. 261-273, 2005.

- [12] Sun Nam Choi, Chong Gouk Chun, Young Hee Shi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in Diminishing Emotional Anxiety and Improving Self-esteem of Children in Low Incom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3, pp. 1101-1119, 2007.
- [13] Se-Hun Kim, Hyungsook Kim, Yongro Ann-ye, Manyong Park, "Long-term Plan for Culture & Arts Education",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4.
- [14] Janice M. Morse, Joan Bottorif Med, Gwen Anderson, "Beyond Empathy: Expanding Expressions of Car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3, No. 1, pp. 75-87, 2006.
- [15] G. Gini, P. Albiero, B. Benelli & G. Altoe,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ce*, Vol. 31, pp. 93-105, 2008.
- [16] C. Anderson & D. Keltner, "The Role of Empathy i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Bond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Vol. 25, pp. 21-22, 2002.
- [17] Martha C. Nussbaum, "Compassion: The Basic Social Emo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 13, No. 1, pp. 27-58, 1996.
- [18] Heung-Kweun Yang & Kwan-Su An, "A Study on Enhancement of the Lifelong Learning Function at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Studies*. Vol. 7, No. 3, pp. 191-213, 2006.
- [19] Chulho Kim, "The Effect of Consumers' Social Predisposition and Ethical Cognition about Advertising Creativity on the Intention to Avoid Advertising and the Need to Recognize Advertisers' Social Responsibility(AS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19, No. 4, pp. 215-229, 2013.
- [20] T. M. Singelis, H. C. Triandis, D. Bhawuk, & M. J. Gelfand,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Vol. 29, pp. 240-275, 1995.
- [21] A. T. Church, & W. J. Lonner, "The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the Study of Personal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9, No. 1, pp. 32-62, 1998.
- [22] H. R. Markus & S. Kitayam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8, No.2, pp. 224-253, 1991.
- [23] H. C. Triandis & M. J. Gelfand,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 Vertical Dimension of Individualism &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74, No. 1, pp. 118-128, 1998.
- [24] C. H. Hui,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22, pp. 17-36, 1988.
- [25] P. J. Watson & R. J. Morris,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Values: Hypotheses Suggested by Alexis de Tocqueville",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36, No. 3, pp. 263-271, 2002.
- [26] Chulho Kim, "The Effect of Consumers' Social Predisposition and Ethical Cognition about Advertising Creativity on the Intention to Avoid Advertising and the Need to Recognize Advertisers' Social Responsibility(AS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19, No. 4, pp. 218-219, Modified, 2013.
- [27] D. W. Organ, "A New Kind of Performance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Recent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Organizational Behavior",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14, pp. 337-368, 1999.
- [28] N. Ramamoorthy & S. J. Carroll, "Individualism/Collectivism Orientations and Reactions Toward Alterna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Human Relations*, Vol. 51, No. 5, pp.571-588. p.573, 1998.
- [29] T. A. Judge & J. A. Bono,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 -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6, pp. 80-92, 2001.
- [30] F. Pajares, *Current Directions in Self-efficacy Research*, In M. Maehr & P. R. Pintrich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Vol. 10, pp. 1-49, 2001.
- [31] L. W. Cox, S. L. Mueller, & S. E. Moss, "The

-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Vol. 1, No. 2, pp. 229-245, 2002.
- [32] Utpal M. Dholakia, Mahesh Gopinath, Richard P. Bagozzi, Rajan Natarajan, "The role of Regulatory Focus in the Experience and Self-Control of Desire for Tempta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16, No. 2, pp. 163-175, 2006.
- [33] Alexandra V. Rodriguez, "Not All Desires are Created Equal: Exploring A Dual-Motivation Account of Consumer Desire", Doctor of Philosophy in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2006.
- [34] M. Perugini & R. P. Bagozzi,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1, pp. 79-98, 2001.
- [35]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No. 3, pp. 542-575, 1984.
- [36] Sang Min Lee, "A study of applying a Story telling method for the Education programming on a society, culture and an art -Based on Old men Drama",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Vol. 15, pp. 27-44, 2009.
- [37] J. Guetzkow,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n arts impact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2002.
- [38] E. Engelberg & L. Sjöberg, "Internet use, Social Skills, and Adjustment".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7, No. 1, pp. 41-47, 2004.
- [39] M. Pinquart & S. Sorensen, "Influences on Loneliness in Older Adults: A Meta-Analysi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3, No. 4, pp. 245-266, 2001.
- [40] R. J. Hazler & S. A. Denham, "Social Isolation of Youth at Risk: Conceptualiz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80, No. 4, pp. 403-409, 2002.
- [41] H. Vincenzi, & F. Grabosky,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2, pp. 257-270. 1987.
- [42] Geung Ho Cho, Ji Yeon Kim, Keong Soon Choi. "Cultural Dispositions, Control of Anger, and Empath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3, No. 1. pp. 69-90, 2009.
- [43]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 [44] Harry Vincenzi & Fran Grabosky,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2, No. 2. pp. 257-270, 1987.
- [45] Geum-yong Lee & Eunhye Cho, "A Study on the Effect of Main Variables to the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Focused on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3, No. 1. pp. 162-189. 2013.
- [46] Yong-Se Shin, Sun-Bae Kim, "The Effects of CEO's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4, pp. 165-175, 2013.
- [47] Hyejun Lee, Dong Il Lee, Wonseok Woo,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in the Online Communit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 73-87. 2016.

김 철 호(Kim, Chulho)



· 2004년 12월 :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Mass Communication 전공 (언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상호작용적 미디어, 기대 가치, 광고심리, 평생교육, 문화예술 교육

· E-Mail : philosea@cju.ac.kr